

“신천지 교인 4만991명 전수조사하라”

대구교회 다녀온 교인·접촉자 확진 4명...추가발생 가능성 광주·전남 교인 수 전국서 가장 많아...광주경찰 조사 손 나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를 다녀온 교인들이 가운데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자가 급증하면서 광주·전남 교인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나서려고 했다가 실패한 점 그리고 광주·전남지역 신천지 교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하면, 즉각 조사에 나선 대구지방경찰청과 달리 행정에만 맡겨놓고 ‘관망’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광주 경찰의 안이한 상황 인식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전국 최대규모인데도 전수조사 못한
다니=23일 신천지 광주교회측에 따르면 광주·전남 신천지 교인은 4만 991명으로, 북구 오차·송하동 2개 교회에 다니는 교인만 2만6715명, 전남에는 목포·여수·순천·광양 지회 소속 교인이 1만 4276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광주지역 95개 복음방·선교센터를 다니는 이른바 ‘예비’ 교인 5378명, 전남 ‘예비’ 교인 4118명 등을 합하면 광주·전남 신천지 관련 교인은 5만명을 육박한다.

이들 중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 확실히 받은 환자가 4명에 이르고 이들의 배우자 2명과 성경공부를 같이 하는

접촉자 1명 등 총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밀접 접촉한 교인들 중 발열·기침 등 ‘유증상자’만 58명이라는 게 신천지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 정보 대부분이 신천지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대구지역 대규모 확진 사례 발표 당시만 해도 광주지역 참석자는 없다고 발표했다가 뒤늦게 참석 인원을 수정하는 등 혼선을 초래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 주도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러나 “전수조사 방향은 어렵다고 한다”며 신천지 측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드러냈다.

◇광주 경찰 ‘뒷집’ 지고 있다=광주북부경찰은 지난 16일, 대구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다가 대구로 확진 사례가 드러난 뒤에도 광주지역 교인 참석 여부를 파악하지 않는 등 사실상 한 발짝 물러선 채 관망하던 상태였다. 북부경찰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40명을 넘기던 19일에도 “경찰이 대구지역 예배에 참석한 교인을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했었다.

광주·전남 6곳 가운데 신도수가 가장 많은 신천지 광주교회가 관할지역에 있음에도 대구 예배에 참여했거나 이들과 접촉



2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신천지 베드로 지성전(광주교회) 주변이 인적이 드문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했던 교인들을 파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 경찰은 대구지방경찰청이 형사·수사 분야 인력 600여명을 동원, 연락이 닿지 않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과 달리, 광주시가 전수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에도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

을 동원해서라도 전수조사를 위한 신도명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경찰이 밝힌 ‘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치안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이 무색한 형편이다.

신천지 광주교회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최대한 광주시측에 제공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진월초 교사 확진...전체 교직원 ‘자가 격리’

광주시교육청 산하 5개 도서관 3월6일까지 휴관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현직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학교가 휴업 조치되는 등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천지 전도사로 알려진 126번 확진자의 아내 A(31·광주시 서구)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 판명됐다.

광주 진월초등학교 부장교사인 A씨는 신천지 대구예배에는 가지 않았지만 남편이 확진자여서 밀접 접촉자인데다 코로나19 증상을 일부 보이기도 해 그동안 조선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차량으로 학교로 출근해 업무를 본 뒤, 12시께 주일동 한 레스토랑에서 동료교사 10여명과 오전을 함께 한 후 학교로 복귀

했다. 이어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운영위원들에게 사학한 학사일정과 교육과정,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오후 5시께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진월초교에 3월 6일까지 폐쇄 수준의 휴업 명령을 내렸다. 진월초 전체 교직원에게는 ‘자가·자율적 격리’를 지시했다.

학교체육시설도 3월 1일까지 개방을 중단했고, 모든 학원에 대해서도 2월말까지 휴업을 적극 권고하고 방역·소독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과 금호평생교육관 등 산하 5개 도서관에 대해서도 24일부터 3월 6일까지 휴관을 결정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확진자 다녀간 광주우치공원·동물원 폐장

광주 우치공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23일 폐장됐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환자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께 우치공원과 동물원에서 2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126번 확진자와 광주에서 성경 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음날인 21일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

가 격리 중 검사를 요청해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 당국은 확진 판정 후 동선을 조사해 우치공원 방문 사실을 파악했지만 정작 우치공원 관리사무소 측에 즉각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치공원 측은 이날 정상 개장했다가 오전 11시 이용성 광주시장의 언론 브리핑이 있고 난 뒤에야 방문 사실을 인지하고 폐장 결정을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종교계도 비상...미사·예배·법회 중단·취소

천주교광주대교구 미사 중단 광주기독교 각종모임 자체 대한불교조계종 법회 취소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광주·전남 종교계도 미사와 법회, 예배 등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천주교와 불교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정기 미사와 법회를 중단했으며, 개신교도 예배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다음달 5일까지 미사와 모든 모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광주대교구는 지난 22일 김희중 대주교 명의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지침을 발표했다. 다만,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당은 개방한다. 하지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고해성사도 환기가 잘되는 개방된 곳에서 해야 한다.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도 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예배를 축소·조정하고 각종 모임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예배

당 소독과 예배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록 교인 외 교회 출입자 신분 확인 등도 당부했다. 대규모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들은 영상 예배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들도 신도들이 모이는 법회와 성지순례, 교육, 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조계종의 긴급 지침에 따라 주요 법회를 취소했다. 또 사찰별로 열감지 카메라와 손 세정제 및 마스크 등을 비치했다. 화엄사는 매월 음력 초하루에 열리는 24일 법회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하는 오는 3월 7일 정기법회를 취소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대중 공양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무각사도 지난 20일부터 철야기도와 법회, 대중 공양을 모두 중단했다. 조계종은 불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위생을 철저히 하고 본당에 출입하고 급적 가정에서 수행하기를 권고했다.

원불교도 단체 훈련이나 행사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하고, 일요 예회 등을 진행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앞서 22일 정세균 총리는 긴급 대국민



23일 광주시 서구의 한 사찰을 찾은 신자가 마스크를 쓰고 법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담화를 통해 “종교행사 등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자라나 야외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

고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자도 고수의 볼.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2월 28일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수강료: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상당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3. 3(화) 오후 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2. 25(화) 오후 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